

哲學的 思惟의 理解

根源的 了解로서의 그 構造關聯(二)

金基錫

우리들은 過去의 哲學이 主로 形而上學, 認識論에 그쳤음을 압니다. 또 이 形而上學이나 認識論은 그것이 主로 『知性的 論理』에 거치어 잇었음도 압니다. 最高의 世界解釋이라고하여 내어 세우는

觀念 論과 唯物論. 이것은 『知性的 論理』가 哲學을 한갓 概念的 思惟에 로 이끌면서 저절러 노은 巨大한 過誤입니다. 사람들은 概念的으로 構成된 認識만이 勝義의 哲學的 知識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概念的 思惟에 대한 感情的 思惟란것이 없겠읍니까. 오늘에 만히 論議되는 『象徴形式의 哲學』 같은 것은 어느 意味의 이 感情的 思惟를 가르치는 것 같읍니다.

나는 언제인가 『머리로 생각하는 哲學』에 대한 『몸으로 생각하는 哲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잇거니와, 哲學이 論理를 無視해도 안되지마는 그러라고 하여 論理에만붙잡혀야 한다는 법도 없겠읍니다. 實在 및 現實에 對한 根源的 解明을 그 課題로하는

哲學 으로서 한갓 抽象的 分析을 일심는 概念的 思惟에만 붙잡혀서 될 것 입니까. 哲學이 思惟의 품안에만 머물러 잇지 아니하고 理解, 解釋, 省察, 體驗의 새로운 原野에 내어 달려 저 廣汎한 現實속에 自己를 解放해야 하는 것은 진실로 哲學本來의 運命 또는 行程이 되는 것입니다.

哲學은 觀念이 아니라 實在와 現實을 생각해야합니다. 哲學은 存在 및 그 世界를 그 具體性에 잇어서 理解, 闡明해야합니다.

人間의 文化行動이 모두 現實世界안에서 現成되거니와 自己를 原理의 學으로 主張하는 哲學에 이르러서는 그 現實과의 接近 및 關聯이 한층 더 심한 바가 잇읍니다.

純粹 히 現實에서 隔離된 哲學이란 애당초에 잇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哲學이라고 하면 이 現實世界에 대한 理解가 아니라 이른바 哲學研究, 哲學解說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안읍니까. 哲學에 대한

省察이라고하여 哲學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哲學은 본대 哲學에 대한 省察이기전에 먼저 現實에대한 省察이되어야 하지 안겟습니까.

우리들은 물론 이 人間思惟의 源流로서의 哲學이 過去에 있어서 過去의 思索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빛나는 業蹟을 남기어 노חת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름을 哲學의 研究에 빌어 한갓 哲學및 哲學者에 대한 단순한

知識 實踐에 그칠진대 그는 依然히 哲學을 모르고 哲學하는일을 모르는대로 남겨잇겟음니다은 過去의 사람들의 깊은 思索과 맑은 生涯가 길러 나온 希臘哲學과 獨逸의 理想主義, 이 빼어난 思索體系를 대서롭지안케 보아서 뭇말 입니까. 그들은 人間에 대하여 自然에 대하여 生에 대하여 眞理에 대하여 人間の 理性으로서 到達할수잇는 最高의 智慧를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잇음니다.

哲學研究는 그것이 한 달文獻學같은데 떠러져서는 안 됩니다. 칸트면 칸트, 헤-겔이면 헤-겔에 대한 研究는 단순히 칸트解說헤-겔解說에 그칠 것이 아니고 칸트나 헤-겔의 抱擁하엿던 哲學的 思索의

根本 體系를 理解하고 나아가 哲學의 方法으로서의 批判的 方法, 辨證的 方法같은 것을 究明하는데 미쳐 그들의 哲學觀度 또는 思惟態度를 배흐면서 自己 스스로 不斷히 이 實在의 世界, 現實의 世界를 省察해 나아가지 안혀서는 안됩니다.

哲學은 본대 哲學的 思惟가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哲學的 思惟란 무엇이겟습니까. 사람에게 무론 理性이란 것이 잇고, 이 理性과 함께 感情또는 衝動이란것이 주어젓습니다. 우리들의 日常生活의 現實에서보면 이 感情또는 衝動이 理性에압서 우리들의 意欲과 行動은 이끌어 나아가는 □導性을 가지지 안습니까.

사람의 生活은 정히 思惟의 體系가 아니라 도리혀

不斷 한 行動의 持續 및 그 聯關이 됩니다. 그러나 人間の 行動 또는 實踐은 그것이 단순한 運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勞動과 生産이것은 그 자신 한 개 運動이 되어야 합니다. 運動 아닌 勞動, 運動아닌 生産이란것이 잇겟습니까. 이 勞動또는 生産이 어디까지 던지 運動이 잇기는 하면서도 우리들이 自然의 世界에서 보는 단순한 客體的인 運動과는 구별되지 안흐면 안됩니다.

이제 들에서 일군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그것이 運動을 意味한다고 하여 떨어지는 나뭇잎, 흘러내리는 시내 물과 같은 現象으로 생각할 길이 잇겟습니까. 더욱이 人間の文化에 있어서의 探求및

創造 에 이르러서는 그것은 너무도 분명하게 단순한 運動을 넘어서는 어

면 深遠한 意味를 가지게 됩니다.

人間의 行動은 무엇에 있어서 自己를 運動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겠습니까. 行動이 運動으로부터 구별된다고 해서 그것이 運動을 否定한다고 볼 것이 아니고, 도저히 運動속에서 自己를 限定해 이 運動이면서 그대로 運動에 그치지 아니하고 단순한 運動을 넘어 선다고 보여 지는 行動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運動이 客體的인것임에 反하여

行動은 主體的인것이 되어야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 客體와 그별되는 主體란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人間의 行動또는 實踐이 社會的 歷史的인 性格에 있어서 自己를 自然의 世界에서 이러나는 運動에 대하여 구별하기에 이른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社會性和 歷史性, 우리들은 現代의 論理가 걸핏하면 즐겨 내세우기만 하면서 아직도 그 構造에 대한 解明에는 손을 대이지 못한 이 『社會的 『歷史的』에 만났습니다.